

슬픔과 기쁨, 그 정서의 소재유형이 중학생의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Focus of Attention (Sadness and Joy)
on Altruism

권민균** 정옥분***
KWON Myn Gyun, CHUNG Ock Boon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was designed to study the effect of gender differences and focus of attention (on sadness and on joy) in altruistic behavior. The subjects were 74 boys and 76 girls from a junior high school in Seoul. Emotion arousing and focus of attention identifying methods were used. Statistical analyses were with two-way ANOVA and Scheffé t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truistic behavior between the sadness self-oriented group and the sadness other-oriented group. The results were explained in terms of the accessibility of cognitive contents.

* 이 논문은 198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부교수

I. 문제의 제기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성이 상실되고 협동보다 개인적 승리가 가치우위를 갖는 분위기에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간 서로의 갈등이 빈번한 요즈음, 인간행동의 부정적 측면인 공격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그 반대적 개념이라 할수 있는 인간행동의 긍정적 측면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taub (1971) 가 지적했듯이 우리사회는 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 등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규범 또는 책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 시킨다기 보다는 나쁜행동, 공격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의 규제에만 너무 역점을 두어 훈육시키는 분위기라고 하였다. Perry 등 (1984) 도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공격행동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방지 및 제거의 소극적 노력보다는 협동, 타인을 돕기, 그리고 타인과 나누어 갖기 등의 바람직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인 태도가, 긍정적이고도 여유를 가진 사회의 일원을 양성하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 등의 부정적 행동의 금지, 치료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이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한 동정과 책임성 등을 느끼도록,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적극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본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경향은, 한 개인이 곤경에 처한 타인을 보고 도와줄 것이냐 혹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냐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 변인들은 크게 네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개인적 변인으로서 도움행동 수행자의 성, 나이, 인

종과 인성을 들 수 있고, 둘째, 상황적 변인으로서 친사회적 행동 관찰의 기회, 제삼자의 존재, 곤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행동 수행자에 대한 의존정도, 경쟁적 또는 협동적 분위기 그리고 도움행동 수행자의 감정상태를 포함하며, 셋째, 곤경에 처한 사람의 특성에 관한 변인으로 성, 나이, 인종, 외모 그리고 도움행동 수행자와 곤경에 처한 사람간의 유사성과 친밀성의 정도가 있으며, 넷째, 문화적 변인으로, 도움행동 수행자가 소속해 있는 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가치기준과 규범을 들수있다 (Bar-Tal, 1976; Krebs, 1987).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은 이 네 범주에 속하는 변인의 상호영향을 받아서 도움행동 수행자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도움행동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중 상황적 변인 범주에 속하는 도움행동 수행자의 일시적 감정상태가 이타행동 수행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도움행동이 요청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움행동 수행자는 과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한 보상과 부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는데 이때 보상과 부담중 어떤 기억이 강하게 상기 되느냐는 그 사람의 현재 감정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리에 따라 진행되었다 (Bar-Tal, 1976; 안신호, 1984). 즉 도움행동 수행자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거 도움행동으로 자신에게 결과된 보상 또는 부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때 보상과 부담중 어떤것이 강하게 회상되느냐는 것은 바로 자신의 현재 감정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게되어 보상이 강하게 상기되면 이타행동을 수행할 결정을 내릴것이고, 부담이 더 강하게

상기되면 이타행동을 거절할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여러요인의 영향을 받아 표출되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특정행동을 수행하는것은, 결국 자신의 현재 감정특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느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타행동 수행의사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변인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인지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겠지만, 필요하고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과 행동을 밀접히 연결시킴과 동시에 즉각적인 그 행동의 표출은 사실상, 이타행동 수행자의 현재 기분상태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상태에 대한 연구는 처음, Berkowitz 와 Connor (1966) 그리고 Isen (1970) 에 의해 시도 되었다. 그들은 피험자에게 성공감, 실패감의 감정을 유발 시킨후에 이타행동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성공감 경험의 피험자들이 실패감 경험의 피험자들보다 이타행동이 컸다. 이것은 다시 Berkowitz (1972), Kazdin 과 Bryan (1972) 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성공감 때 이타행동이 많고 실패감 때 이타행동이 적다는 결과는 성인을 피험자로 하였을 경우 일관성이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그 반대의 현상이 발견 되기도 하여 그 결과에 일관성이 없다. (Isen et., 1987; Miller et al., 1977).

Berkowitz 등 (1966) 의 성공감과 실패감에 대한 실험은 순수한 의미의 정서상태에 대한 연구라기 보다는 능력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순수한 의미의 정서상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Isen 과 Levin (1972) 은 기분좋은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하였다. 또 Aderman (1972) 은 피험자에게 기분좋은 또는 우울을 나타내는 문장을 읽게한 후 이타행동을 측정 하였으며, Rosenhan 등 (1974) 은 피험자에게 과거에 행복했거나 슬펐던 경험을 회상 시킨후에 결과된 감정상태에서 이타행동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분좋은 상태가 기분이 나쁘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보다 더 이타적임을 보여준다.

도움행동 수행자의 감정상태가 기쁨, 행복감 일때 그렇지 않은 감정상태 일 때보다 이타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대개 일관성을 보인다. 그러나 슬픔, 우울, 죄의식등의 부정적 감정상태가 이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연구마다 상이하다 (Cialdini et al., 1976; Moore et al., 1973; Rosenhan et al., 1974) .

기쁨, 슬픔 등의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간의 결과의 상이성을 해결한 시도로서, 정서 - 이타행동간의 매개변인으로서 그 정서의 자극원인이 자신에게 관계된 것이냐, 타인에게 관계된 것이냐 하는, 즉 주의초점의 소재 (focus of attention) 또는 정서의 근원에 착안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Barnett, King 과 Howad (1979) 는 특정 정서의 주의초점이 자신에게 있는가, 타인에게 있는가에 따라 이타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자신이 경험한 슬픈 사건을 회상한 아동보다 타인이 경험한 슬픈 사건을 회상한 아동이 더 관용적임을 보여 주었다.

Rosenhan, Salovey 와 Hargis (1981) 역시 기쁨의 정서 주의초점이 자신에게 있는

가 또는 타인에게 있는가에 따라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았는데 타인기쁨의 감정을 유발한 집단보다 자신 기쁨의 감정을 유발한 집단의 이타행동이 더 컸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슬픔 또는 기쁨의 감정이 자기 것이냐, 타인 것이냐의 주의초점의 소재는 정서-이타행동의 관계에서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또, 기존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간의 상이성은, 이러한 자극 정서의 근원과 특정 정서 유형과의 상호작용을 봄으로써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쁨, 슬픔의 정서가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만일 내적 정서와 이타행동 간에 관계성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느냐에 대한 해결로서 그 자극 정서의 근원이 자기의 것이냐 타인의 것이냐에 따라 이타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이타행동의 유발 기제인 정서, 동기에 대해 규명하고, 왜 정서가 이타행동을 유도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타행동을 유발, 강화시키는 환경적 여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사려적이고 협동적인 자세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위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에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은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슬픔에 의해 야기되는 이타행동은 남

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이타행동에 있어서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에는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가?

넷째,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은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기쁨에 의해 야기되는 이타행동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이타행동에 있어서 기쁨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에는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가?

일곱째, 슬픔과 기쁨의 정서가 이타행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들 두가지 정서와 주의초점 소재유형을 동시에 비교할 경우 어떤 양상을 띠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이타행동의 정의

Berkowitz (1977) 와 Krebs (1970) 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여러유형 중 하나인 이타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이타행동은 첫째,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둘째, 그 행동의 목표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데 있으며 셋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수행되는 행동이다. 한편, Midlarsky (1968) 는 이타행동들은 “ 도움행동 중에서 투자한것에 비해 적은 보상 또는 아무 보상이 없는 것이냐, 도움행동 수행자에게 부담을 요구 하는 것으로 다양한 도움행동 중의 하위 개념 ”이라고 정의 하였다. Walsater 와 Piliavin (1972) 도 이타행동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선의에 의한 행동 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타행동은 기본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 이지만

질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으로서 이는 어떤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행된, 자발적이고도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이타행동은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없이 정의 (justice)에 대한 도덕적인 확신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이타행동 습득에 관한 이론

사회생물학자들은 이타적 동기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견해를 갖는다. Wilson (1975)은 종족의 재생과 유지를 위한 여러 행위 (사냥, 농업, 의사소통 등)는 협동, 신뢰, 정직, 충성 및 전체를 위한 기꺼운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런 특징이 선호됨이 자연의 법칙이라 하였다.

Hoffman (1981)은 이타행동을 매개하는 특정 심리적 반응은, 감정이입 또는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는 경향인데 이런 성향은 유전 된다고 한다. 결국, 사회생물학자들에게 있어 이타행동이란 수행한 사람의 생존 또는 그 집단의 영원한 생존을 위해 수행되는 것으로, 이런 성향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타행동 습득에 관한 인지발달론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이론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인지수준이 자아중심적 단계에 있는 약 8세 미만의 아동은 이타행동에 대한 개념적, 인지적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적 또는 비이타적이라 할수 없다. 또한 아동의 이타행동은 열살까지는 꾸준한 증가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는 아동의 인지수준 및 도덕적 추

론이 성숙한 결과로서 이해 될 수 있다.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모든 행동이 강화와 관찰모방에 의해 학습되듯이 이타행동 역시 보상받은 결과에 의해 습득되어진다고 한다. Bandura (1965)에 의하면 외부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도덕행동 또는 이타행동을 수행하지만 자신들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내적 반응 (자부심, 자존감, 후회, 죄책감)에 의한 행동통제 역시 아동의 이타행동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3. 구체적 상황에서의 이타행동

의사결정과정

한 개인이 일상 생활 속에서 도움행동이 요청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이타행동을 수행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이타행동이 표출되기 위한 첫째 필요 조건은, 잠정적 도움 수행자가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 후에 잠정적 도움 수행자는 도울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그리고 돕는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두 개의 판단 과정으로 구성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는데 첫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왜 곤경에 처해 있는가를 판단하는 책임성 귀인 과정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과 둘째, 요청된 도움행동을 제공 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되돌아올 보상과 부담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보상-부담분석 과정 (reward-cost analysis)을 거치게 된다.

Heider는 이타행동 수행자는 요청을 받

으면, 그 상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통제하에 있느냐 혹은 외부 환경의 힘에 의한 것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통제 밖에 있느냐를 판단해서 도움행동을 결정 한다고 한다. Heider의 가설을 기초로 하여 시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그 사람 내부의 통제에 의해 결과된 경우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의해 결과된 경우에 이타행동이 더 많았다고 한다. (Berkowitz., 1969; Horowitz., 1968).

도움행동 요청 상황에 처한 사람은 이타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결과될 보상과 부담의 크기를 계산 한다. 특히 이타행동을 함으로써 부담 지워질 시간의 소비, 노력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외부적 혜택을 기대하고 수행되는 도움행동은 이타행동에서 제외 시키더라도, 이타행동 수행으로 결과된 자존감, 자부심 또는 기분좋음등의 내적 보상을 기대하여 수행된 행동조차 제외 시킬 필요는 없다. (Bar-Tal 1976). 따라서 이타행동 수행자는 요구를 거절 하였을 경우에 결과될 부담 (사회적 비난, 수치감,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존감의 손상등) 과 이타행동을 수행 하였을 경우에 결과될 보상 또는 부담 모두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보상-부담 분석에 대한 경험연구는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부담 효과를 본 것들인데, 결과는 부담이 클수록 도움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Schaps, 1972; Schopler et al., 1965)

이상의 이타행동 판단 과정에서의 책임성 귀인, 보상-부담분석 과정은 서로 영향을 미쳐 결정 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은 큰 의미 혹은 보상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노력등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람은 게으르다고 합리화하여 이타행동 수행을 안 할 수도 있다.

4. 이타행동 유발과 정서상태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도움행동이 요청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타행동 수행자는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보상과 부담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이타행동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기억이 강하게 상기되느냐는 그 사람의 현재 감정상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안 신희, 1984; Bar-Tal, 1976; Isen et al., 1987; Levin et al., 1975).

먼저, 현재 정서가 이타행동의 의사결정시, 유발되는 기억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라는 두 범주 안에서 연구되어 왔다. 예를들면 성공감 또는 실패감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집단별로 상이하게 처치한 후에 이타행동의 차이를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감, 실패감의 유발은 Berkowitz 등에 의해 최초로 시도 되었는데, 그들은 Merton (1967) 이 공격성등의 이타행동 (deviant behavior) 은 자신의 목적달성과 그것의 달성을 위한 사회 제도적 수단 및 장치 등이 불일치하여 좌절감을 느낄 때, 기존의 사회규범 및 규칙 등을 무시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는 주장에 착안하여, 좌절감을 느끼면,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의 규범을 무시하게 되어 도움행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 하였다. 반면에 성공적인 목표달성은 도덕적 규제를

함으로써 야기되는 장시간의 불편 또는 즉각적 만족의 보류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있어 사회규범 및 사회이상에의 순응을 손쉽게 한다는 논리에 의해 진행 되었다. Berkowitz 등(1966)의 실험은 성공감의 경험, 실패감의 경험, 특별한 느낌이 유발되지 않는 자극의 세 조건을 남자 대학생에게 집단별로 처치하였더니 성공감 경험 집단이 타인을 돕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공감, 행복감 그리고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는 이타행동을 증진 시킨다는 가설에 대하여 여러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나, 우울, 불행 등의 부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들 간의 상이한 가설과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즉, 부정적 감정에 대한 감정이입 (Aderman et al., 1970), 난처함 (Apsler, 1975), 모욕을 당함 (Steele, 1975), 피해를 당함 (Greenglass, 1969), 인지적 부조화 (Kidd et al., 1976) 타인에게 고통을 준 후에 결과된 죄책감 (Carlsmith et al., 1969; Darlington et al., 1966), 타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음을 관찰 (Konecni, 1972; Rawlings, 1968)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비정상적인 점수를 받았음을 보고받는 (Freedman et al., 1967)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피험자는 이타행동을 증진 시켰다고 보고 되었다.

그러나 Berkowitz 등(1966), Isen 등(1973)의 실험에 의하면 실패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피험자와 통제집단 피험자 간에는 이타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되었다. 한편, Moore 등(1973)은 성공감, 행복감 등의 긍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을 증진

시킨다는 가설을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 정서에 대비될 수 있는 실패등의 부정적 정서는 이타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들 역시 성공, 실패감 등이 순수한 내적 상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의하여, 좀 더 순수한 정서상태로서 행복, 슬픔 등의 정서를 회상법의 방법으로 유발시켰다. 이타행동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한 집단, 통제집단, 슬픈 과거를 회상한 집단의 순으로 결과 되었다. 이것은 Rosenhan 등(1974), Underwood 등(1977)의 실험 결과와도 같다.

Moore 등(1973)은 슬픔 및 죄의식 등의 부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상이하게 결과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실패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이타행동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실패 경험으로 유발된 정서는 부정적 느낌 뿐만 아니라, 손상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 하고자 하는 욕망도 아울러 자극하여, 실패 경험 피험자는 이타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둘째, 자연스런 상태에서 내부로부터 유발된 정서는 이타행동을 감소 시키겠지만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유발된 실패에 의한 부정적 감정은, 내부에서 유발된 불유쾌한 경험과는 다소 상이한 효과를 낳아서, 이타행동에서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정서가 유발된 근원을 고려하여야 부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된 원천의 상이성이 구체적

으로 이타행동에 어떠한 기제로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서 실패, 불행 등의 부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일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서-이타행동의 매개 변인으로서, 자극 정서의 원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서-이타행동의 매개 변인으로서 자극 정서 소재를 직접적으로 연구를 시도한 사람은 Thompson 등 (1980) 이다. 그들은 실패, 죄의식, 슬픔 등의 부정적 경험이 연구에 따라서 이타행동을 증진 시키거나 혹은 감소 시키는 비일관적인 결과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결점으로서 “주의 초점 (focus of attention)”이 부정적 감정과 이타행동을 매개한다고 제시 하였다. 즉, 슬픔의 경험이 자신에게 관계된 것이냐 혹은 타인에게 관계된 것이냐의, 유발시키는 감정의 어디에 주의를 맞추느냐에 따라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Cialdini 와 Kenrick (1976) 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타행동이 감소한 실험은 피험자를 아동으로 하였을 경우이고, 반면 증가된 실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였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이타행동 관계는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 변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 되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연령집단을 비교한 결과 나이 어린 아동일 경우 (6세 - 8세) 슬픔을 경험하였을 때 통제집단에 비하여 이타행동이 적었고, 청소년 (15세 - 18세) 일 경우 슬픔을 경험 하였을 때 이타행동이 컸다. 따라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움행동을 표출 한다는 이

른바 “부정적 감정 해소 모델 (negative state relief model)”을 제시 하였다.

이는 사회화 경험을 통하여, 도움행동은 보상적 이어서 자신의 현재 불유쾌한 상태를 상쇄시켜줄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경우 사회화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 해소 수단으로서 이타행동을 인식할 수 없고, 따라서 슬픔을 느낄 때 자기 감정에만 집착하여 이타행동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Thompson 등 (1980) 은 주의초점이 정서-이타행동을 매개한다는 주장이 Cialdini 등 (1976) 의 사회화 과정에 의한 부정적 감정 해소 모델과 크게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Cialdini 등 (1976) 의 가설대로 “기분이 나쁘면 (feel bad), 선행을 한다 (do good)” 이긴하나 단 이효과는 관심초점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게 맞추어진 경우에만 한정되고, 자신의 슬픔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는 이타행동이 부정적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슬픔상태의 아동은 Cialdini 등 (1976) 에 따르면 그 정서의 자극 원천이 자신에게 관계된 것이냐 또는 타인에게 관계된 것이냐에 상관없이 이타행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보상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사회화 과정으로 내면화 시키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타행동은 억제될 것이고, 반면 Thompson (1980) 등의 설명에 의하면 슬픔의 정서를 유발시키는 주의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었느냐 또는 타인에게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이타행동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Cialdini 등 (1976) 의 실험은 상이한

연령 집단의 피험자에게 과거 슬픈 사건을 회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서 슬픔의 정서를 유발 시켰다. 그런데 어린 아동의 “자아 중심성” 인지 발달 특성을 고려할 경우, 어린 아동은 자신에게 관계된 슬픈 사건에 주의초점을 맞추었을 것이고,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게 관계된 슬픈 사건에 주의초점을 맞추어 회상할 가능성이 크다. 더우기 Cialdini 등 (1976)은 의도적으로 주의초점의 소재를 분명하게 조작하여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는, Cialdini 등 (1976)의 “부정적 감정해소 모델” 또는 Thompson 등 (1980)의 “주의초점의 소재” 두 가설중 하나보만 결론 지을 수 없는, 둘다 설명 가능한 가설임이 Thompson 등 (1980)의 지적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주의초점의 소재를 상이하게 함으로써 이타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Rosenhan 등 (1981)은 Thompson 등 (1980)이 개발한 감정 유발법을 사용하여 기쁨의 정서를 유발 시켰는데 각 집단 별로, 자신에게 관계된 기쁨인가, 타인에게 관계된 기쁨인가 또는 통제집단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을 하였다. 결과는 타인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자신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이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즐거움을 느끼는 강도를 체크 하였는데, 집단 간의 이타행동에 차이를 낳게 한 것은 즐거움의 강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 주의초점의

소재”에 의한 것임을 다시 확인 하였다.

그들은 Thompson 등 (1980)의 자기에 관계된 슬픔, 타인에게 관계된 슬픔에 따라 이타행동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언급하면서 초점의 방향은 이타행동을 증진, 억제시키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서의 특성 성격과 상호 작용하며, 상이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하여, 실험실에서 유발된 슬픔과 기쁨이, 그 정서의 소재 유형에 따라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작게는 행동표출에서의 정서와 인지의 관련성, 크게는 중학생의 이타행동 장려환경을 이해함으로써 이타행동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남녀공학의 D중학교 일학년생으로 전체 일학년 학생 중 남학생 80명, 여학생 78명을 무선 표집하여 남녀 각각 다섯집단을 구성하여 다섯개의 실험조건에 무선배당 하였다.

피험자의 연령은 만 12세에서 만 1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남녀 모두에서 만 13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험 처치후 회수한 총 158명의 응답지 중, 의도된 정서 유발이 안 되었을 경우나, 주의초점의 처치에 적절히 동일시 되지 못한 피험자의 응답지 8명의 것을 제외하여, 150명의 응답지만이 실제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측정 도구

1) 정서유발 도구

본 연구의 슬픔, 기쁨의 정서 유발 방법은 Thompson 등 (1980) 이 사용한, 일화를 녹음으로 들려주는 방법을 참고하여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신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및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에게는 김선향 (1987) 의 수기를 참고하여 구성한 일화를 녹음으로 들려주었고, 자신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과 타인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에게는 본 연구자가 '엄마대신 아빠대신' 에 수록된 아동수기를 참고하여 구성한 일화를 녹음으로 들려 주었다. 그리고 통제집단에게는 '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1983)' 에 수록 되어있는 [아동문학] 항의 일부를 뽑아 녹음으로 들려 주었다. 각 일화의 소요시간은 약 4분 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일화가 감정유발 도구로서 적절한 것인가를 보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 하였더니 .93 이었다. 타당도는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 3명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내용 타당도로써 확인 하였다.

2) 주의초점의 동일시 방법

슬픔의 일화를 듣는 집단, 기쁨의 일화를 듣는 집단 각각에게 자신에게 주의초점을 맞추느냐 혹은 타인에게 주의초점을 맞추느냐를 조작하기 위하여 녹음된 것을 틀어 주기전에 지시문에서 자신에게 주의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목소리 주인공이 자신으로 상상하도록 주의를 주었고, 타인에게 주의초점을 맞추는 경우 목소리 주인공이 같은반 친구로 상상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3. 실험 과정 및 절차

예비 실험은 1987년 12월 중에 실시 되었

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실험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실험은 1988년 1월 한 주간에 걸쳐 실시 되었다.

본 실험은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험목적 은폐, 이완 및 감정유발, 감정 유발의 적합성 확인, 도움 받을 대상의 제시와 이타행동 측정 그리고 실험후 설명 단계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한 실험당 소요시간은 25분 이었다.

1) 실험목적 은폐단계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와 앉으면, 실험자는 자기소개를 한 후,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그 뒤에 피험자들에게 이 실험은 청각 운동능력과 시각 운동능력의 일치성과 피험자들의 상상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알려줌으로써 실험목적은 은폐 하였다.

2) 이완 및 정서유발단계

정서유발에 앞서 마음을 안정 시키고 주의를 정돈하기 위하여 간단한 이완 훈련을 한 후 녹음내용을 들려 주었다. 녹음내용을 들려 주기 전에 다섯 집단에게 알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지시문 :

여러분이 들으실 녹음의 내용은 아홉살의 아우를 둔 어떤 학생의 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 줄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학생이라고 상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홉살된 동생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민이 (피험자가 남학생일 경우 옥이) 라는 동생을 여러분은 많이 아끼고 귀여워 합니다. 민이 (옥이) 도 여러분을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민이 (옥이) 가 백혈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이 (옥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런 상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세요 (3초간의 여유를 준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녹음내용이 나갈테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상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지시문

여러분이 들으실 녹음의 내용은 아홉살된 동생을 둔 어떤 학생의 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줄 것은 그 학생이 여러분의 반 친구라고 상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홉살된 동생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친구는 민이 (피험자가 남학생일 경우 옥이) 라는 동생을 많이 아끼고 귀여워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친구는 동생 민이 (옥이) 가 백혈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민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세요 (3초간의 여유를 준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녹음내용이 나갈테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상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 자신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지시문

여러분이 들으실 녹음의 내용은 아홉살된 아우를 둔 어떤 여학생의 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줄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학생이라고 상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홉살된 동생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민이 (피험자가 남학생일 경우 옥이)라는 그 동생을 여러분은 많이 아끼고 귀여워 합니다. 민이 (옥이) 도 여러분을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민이 (옥이) 의 다리를 수

술해 주고 싶지만 우리집에는 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세요 (3초간의 여유를 준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녹음내용이 나갈테니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상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 타인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지시문

여러분이 들을 녹음의 내용은 아홉살된 아우를 둔 어떤 학생의 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줄 것은 그 학생이 여러분의 반 친구라고 상상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홉살된 동생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민이 (피험자가 남학생일 경우 옥이) 란 동생을 그 친구는 많이 아끼고 귀여워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친구는 여러분에게, 동생이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민이 (옥이) 의 다리를 수술해 주고 싶지만 집에는 그만한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3초간의 여유를 준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녹음내용이 나갈테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상상하며 들어야 합니다.

※ 통제집단

지시문 :

여러분은 아동문학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아동문학의 개념, 종류 및 특징들이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줄 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리는 내용을 머리속에서 그려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녹음내용이 나갈테니 집중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유발의 적합성 확인 단계

피험자에게 녹음내용을 다 들려준 후에 의도된 감정이 해당된 집단에 적합하게 유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유발된 감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한 후 응답지에 반응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응답지를 주의깊게 읽고 답해 주세요. 이것은 성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여러분이 느끼는대로 솔직히 답해 주세요. 시작. 그만. 다 안써도 좋습니다. 앞을 보세요.

이로써 본 실험은 일단 끝난 것으로 피험자에게 알려졌다. 이는 앞에서 본 실험목적은 은폐하였듯이, 감정유발과 이타행동 제시간에는 관계가 없는듯이 인식시켜, 이타행동 제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으로 피험자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보조 실험자가 들어온 후, 본 연구자는 교실 바깥으로 나왔다. 이때 보조 실험자는 피험자가 어떤 실험조건에 배당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4) 도움받을 대상의 제시와 이타행동의 측정 단계

지시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자원 봉사반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클에서는 매년 방학을 맞이하여 사회 각지의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불우아동을 위한 위문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문은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생일카드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생일카드를 받을 사람은 여러분 또래의 고아원 아동 또는 근로 학생들인데, 저희 서클 단원들이

제작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받는 사람이 여러분 또래이므로 색채감각, 모양, 글씨, 그림 등의 선호가 여러분과 비슷할 것이므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생일카드를 보내면 받는 사람에게 더욱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일카드 만들기는 특별히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색칠하기, 종이 오려 부치기, 풀칠하기, 봉투에 넣기, 글씨쓰기 등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도울 의사가 있으면 할 일은 많습니다. 이것은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성적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도울 의사가 없으면 도와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응답지에 도와주고 싶은 생일카드 매수를 적어 주세요.

5) 실험후 설명 단계

다섯개 집단에 대한 실험이 끝난 후에 카드 만들기 하는날 특별교실에 모인 피험자에게 원래의 실험목적은 사실대로 말해주고 상황의 성질상 목적을 은폐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전체 피험자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때 카드 만들기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및 태도가 진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동기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4. 자료 처리

이타행동 점수는 카드 만들기 매수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제일 적게는 0매에서 많게는 15매까지 있었다.

성별 및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정서의 주의초점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F 값이 유의있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Scheffé 중다 비교검증을 하였

고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다.

IV. 결과

3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 X 2 (성

별) 이원 변량 분석을 사용하여,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별 및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동시에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1 > 이타 행동 변인에 대한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 성별간의 이원 변량 분석

변 량 원	DF	SS	MS	F	P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 (A)	2	70.87	35.43	6.79	0.002
성별 (B)	1	13.33	13.33	2.55	0.114
A x B	2	6.59	3.30	0.63	0.534
오 차	79	411.88	5.21		
계	84	504.75			

<표 1>에 의하면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별로 이타행동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슬픔의 주의 초점 소재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중다 비교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과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 통제 집단과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집단에 따라

서는 이타행동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 X 2 (성별) 이원 변량 분석을 사용하여 기쁨의 주의 초점 유형별 및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동시에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2 > 슬픔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에 따른 이타행동의 Scheffé test

자신의 슬픔에 주의	통제	타인의 슬픔에 주의
(2.85)	(2.96)	(4.86)

자신의 슬픔에 주의 (2.85)	0.11	2.01 *
통제 (2.96)		
타인의 슬픔에 주의 (4.86)		

() : 평균 [개]

* $P < .05$

< 표 3 > 이타행동 변인에 대한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의 이원 변량 분석

변 량 원	DF	SS	MS	F	P
기쁨의 주의초점의 유형 (A)	2	9.17	4.58	0.67	0.51
성 별 (B)	1	13.99	13.99	2.06	0.15
A × B	2	6.51	3.25	0.48	0.62
오 차	80	542.17	6.77		
계	85	571.02			

< 표 3 >에 의하면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 남녀 집단에 따라 이타행동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 (슬픔과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 × 2 (성별) 이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두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 별 및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동시에 두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 표 4 >에 제시된 바와 같다.

< 표 4 > 이타 행동 변인에 대한

두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 및 성별간의 이원 변량 분석

변 량 원	DF	SS	MS	F	P
두개의 정서와 주의초점의 소재(A)	4	92.21	23.05	2.33	0.059
성 별 (B)	1	11.84	11.84	1.19	0.276
A × B	4	45.44	11.36	1.14	0.336
오 차	140	1384.53	9.89		
계	149	1530.99			

〈표 4〉에 의하면 두개의 정서와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남녀 집단에 따라서 이타행동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 및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슬픔, 기쁨등의 정서가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기 위하여 정서와 행동간의 매개 변인으로서 주의 초점의 소재 (자신의 정서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느냐 혹은 타인의 정서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느냐)를 고려하여, 이타행동 증진에 어떤 정서가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 봄으로써,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에 따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별로 이타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어느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간에 이타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과 통제집단,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과 자신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에

다른 이타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남녀 집단에 따라 이타행동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상호작용 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개 이상의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슬픔과 기쁨의 정서를 주의 초점 소재유형 변인을 매개로 하여 이타행동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남녀 집단에 따라 이타행동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 두개의 정서 및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하여,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바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여 주는 한편, 다소 상이한 결과 역시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슬픔의 주의 초점 소재유형과 이타행동의 관계를 보면, 남녀 모두에게서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이 자신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 또는 통제 집단보다 이타행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hompson 등 (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면 슬픔의 주의초점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이와같은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초점을 곤경에 처한 사람의 슬픔에 맞추었을 경우, Aronfreed (1968)가 감정 이입을 이타행동에서 필수 요건으로 지적하였듯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이 증가하여 이타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자기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타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관심을 전환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타인의 슬픔에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Berkowitz (1972) 가 지적 하였듯이, 사회화 경험을 통해 남을 돕는 행동은 사회적 또는 물질적 보상이 결과됨을 학습하게 되어 일종의 자기 만족적 또는 이기적 동기에 의해 이타행동을 결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은, 이타행동 대상자가 곤경에 처한 바로 그 사람 (the victim) 이 아니더라도 제 3자인 무관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Bar Tal, 1976 ; Thompson et al., 1980)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슬픈 감정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도움행동 요청에 대한 인식이 적어 이타행동에 덜 반응적이게 된다. 따라서 슬픈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보다 이타행동이 현저히 낮게 되고, 슬픔, 기쁨등의 감정을 느끼지않는 통제 집단보다 이타행동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Moore et al., 1973) .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이타행동이 큰데, 위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Thompson 등 (1980) 이 지적하였듯이, 통제 집단은 슬픔, 기쁨등의 특정 정서가 아닌 중성적 감정을 조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제 집단에게 의도된 감정이 제대로 유발되었는가의 문제점이다. 즉 본 연구에서도 슬픔, 기쁨등의 일화를 들은 집단의 경우 주의 초점을 소재유형과는 무관하게 응답지 2번의 질문, 즉 일화를 듣고 난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상상하여 써보라 하였을때 거의 모든 피험자가 장문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상상해서 기입 하였으나 백과사전에 있는 [아동 문학] 항을 들려준 통제 집단의 경우, 후속 이야기에 대한 응답이 적었다. 즉 슬픔, 기쁨의 일화를 들려준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응답에는 문장 길이, 문장수, 이야기의 짜임새에서 차이가 났다. 따라서 통제 집단의 경우, 녹음 내용을 듣기전, 실험자에 의해 제시된 지시문을 통해서 호기심, 긴장을 기대하였으나, 막상 이야기 내용을 듣고보니, 지루한 이야기라서 피험자들이 실망하였거나 심하게는 짜증, 분노심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통제 집단의 경우 중성적 정서의 상태라기 보다는 다른 감정이 개입되어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이타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서 - 이타행동 연구에서는 실험실 연구이거나, 실제 상황에서의 연구 모두에서 통제집단에 대한 적절한 감정 유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본 실험이 Moore 등 (1973) 의 가설과 다르게 결과된 것, 즉 통제 집단 보다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이 이타행동을 더 많이 한것에 대한 설명으로써 Moore 등(1973), Underwood 등(1977) 의 실험 모두는 정서 - 이타행동의 매개 변인으로서 주의 초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실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임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 - 이타행동의 연구에서 주의초점이 매개 변인으로 고려될 경우, Moore 등 (1973) 의 슬픔의 정서, 통제, 기쁨의 정서 순으로 이타행동이 커진다는 이해 가능한 논리도 다시 재고되어야 함을 암시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서 - 이

타행동 관계에서 주의 초점을 고려할 경우, 이타행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다 하겠다.

Cialdini 등 (1976) 이 제시한 가설, 즉 사회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타행동은 보상적임을 내면화하여 슬픔을 느낄때 오히려 이타행동을 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불유쾌한 감정에서 벗어 나고자 하여 이타행동은 증가하게 된다는, “부정적 감정 해소모델” 가설에 의하면, 성인은 슬픔을 느낄때 이타행동이 증가하고 아동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정서-이타행동에서 주의 초점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 (Rosenhan et al., 1974; 1981; Thompson et al., 1987) 의 입장에서, 아동을 대상으로한 실험일지라도 주의 초점을 고려한다면, 아동이라도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이타행동이 증가할 것임이 추론 가능한 것이므로 10세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인지 발달 단계상 자아 중심적 특성이 극복되어 역할 조망이 가능한 중학교 일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 해소 모델로서 설명될 수 있는가 또는 주의 초점 유형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어쨌든, 정서-이타행동 관계에서 주의 초점이 매개 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실험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느낌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에는 그 정서의 특정 성격에는 상관없이 이타행동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경우, 기쁨의 주

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이타행동 관계는 타인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집단, 통제 집단, 자신의 기쁨에 초점을 맞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Rosenhan 등 (1981) 의 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이 타인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보다 이타행동이 큰 것으로 결과되었다. 이렇듯 슬픔의 정서가 아니고 기쁨의 정서일경우 주의 초점은 이타행동의사 결정에 상이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쁨의 정서인 경우 타인이 아닌 자신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출 경우에만 이타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현상은 단지 실험실에서 조작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자신에게 관계된 기쁨을 느낄 경우에 타인에 대한 증여행동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통제 집단보다 이타행동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한된 실험 지식으로서 아직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Rosenhan 등 (1981) 은 주의 초점이 특정 정서유형에 따라 이타행동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는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슬픔, 기쁨, 공포, 분노, 수치심의 정서를 경험한 후에, 도움행동이 요청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언의 사회 비교 과정 (tacit social comparison process)” 이 촉발되어, 자기의 현재 감정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 보다 큰가 또는 작은가를 재빨리 비교해 보게 된다고 한다. 이 계산 결과가 후속 인지에 연결되어서 타인의 슬픔이 자신의 것보다 크면 후속 인지는 타

인의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슬픔이 타인의 것보다 크면 '나는 안정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타행동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 비교과정은 기쁨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신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자신의 행운 및 상대적 효능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여 자신의 정서적 여유로움과 타인의 상대적인 빈궁은 이타행동을 자극시키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타인의 행운 및 상대적 효능에 초점을 맞추어 질시감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태의 인지는 이타적 동기를 자극하기 보다는 실용적 동기를 자극시켜 이타행동이 위축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의 기쁨에 주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질시를 느껴 이타행동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아직 더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이 Rosenhan 등 (1981)의 지적이며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Rosenhan 등 (1981)의 실험은 타인에게 관계된 기쁨을 감정 이입하도록 조작하였을 때 이타인이 피험자와 아주 친밀한 동성의 친구였기 때문에, 피험자로 하여금 질시를 더욱 느끼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이 이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때 주의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정서적으로 피험자와 어느 정도의 친밀한 사이인가의 친밀성 정도의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경우 타인의 기쁨에 주

의 초점을 맞춘 집단인 경우 이 타인은 같은 반 친구로서 상상하도록 조작하였는데, 이는 Rosenhan 등 (1981)의 실험에서의 기쁨의 감정이입 대상자와 친밀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시'가 설로는 설명될 수 없고, 결과도 상이하게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하나의 가능한 설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기쁨 정서의 감정 이입 대상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간에 차이가 있어서 위의 Rosenhan 등 (1981)이 설명하는, 사회 비교과정에 의한 이타행동 의사 결정에 어떤 다른 과정이 개입되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이다. 즉 본 연구의 경우 기쁨의 정서를 감정 이입하도록 한 대상은 같은 반 친구이나 도움행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불우 아동이므로, 사회 비교과정에 의한다면, 자신과 타인의 기쁨의 크기를 비교할 텐데 그 크기를 비교한 후에 막상 이타행동의 대상은 제 3자이므로, 피험자의 기존의 정서 또는 주의 초점에, 다른 인지 과정이 개입되어, 실험에서 조작된 정서가 그대로 유지, 지속되느냐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유발된 정서와 의도된 주의 초점이 이타행동 제시시 그대로 유지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는 그 지속도가 무척 짧은 것으로 Isen, Clark와 Schwartz (1976)의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이 또한 본 연구의 이타행동에서 기쁨의 주의 초점의 소재유형과 통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슬픔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 기쁨의 주의초점의 소재유형 그리고 통제 집단의 이타행동 차이를 동시에 비교해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Cialdini 등 (1976) 의 ‘부정적 감정 해소모델’ 가설의 경우, 슬픔을 느끼는 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이타행동이 증가하고, 또 같은 슬픔이라도 자신에게 주의 초점을 맞추었느냐 혹은 타인에게 주의 초점을 맞추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고, 기쁨의 정서일 경우 아직은 일반적 결론은 내릴 수 없지만 이 역시 주의 초점의 소재에 따라 이타행동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두 개의 정서를 동시에 비교해 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성공감, 기쁨등의 긍정적 정서가 실패, 슬픔등의 부정적 정서보다 이타행동을 증가시켰다 (Moore et al., 1973; Rosenhan et al., 1977). Rosenhan 등 (1974)은 이를 설명하기를 슬픔등의 부정적 정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증가시켜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한 사건에 대해 집착하여 타인의 요청에 무관심함과 동시에 자기 보상을 확고히 하여 자신을 편하게 달래고자 한다. 반면, 기쁨, 행복등의 긍정적 정서는 자신과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 자신만큼이나 타인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하여 자신에게 관대한만큼 타인에게도 관대해져 이타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또 Moore 등 (1973)은 Isen (1970)이 주장한, 성공을 경험한 뒤의 “성공의 환한 불길 (warm glow of success)”이 이타행동을 증진 시킨다면, 실패를 경험한뒤 부정적 정서는 긍정적 정서에 완전히 대비되는 감정이어서 이타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논리

에 근거하여 슬픔, 기쁨등의 긍정, 부정적 정서의 이타행동 차이를 동시에 비교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정서 - 이타행동간의 중요 매개변인인 주의초점을 고려하지 않고 두개의 정서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픔, 기쁨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비교하되, 그 매개 변인으로서 주의초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타행동은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타인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통제집단, 자신의 기쁨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 자신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타인의 슬픔에 주의초점을 맞춘 집단의 이타행동이 그 외의 다른 조건의 집단에서 이타행동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Barnett 등 (1979)의 실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타인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의 이타행동이 그외의 여러 조건에서보다 크게 나온것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보면, 이타행동이란 감정 이입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것인데 타인의 슬픔, 또는 고통에 주의 초점을 맞추는것은 감정 이입 반응을 용이하게 하여 이타행동이 증진되나, 기타 다른 조건, 통제 집단 또는 기쁨을 느끼는 집단에서는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는 상관 없이 감정 이입 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은 이타행동의 필요 조건이며, 이타행동 자체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Barnett 등 (1982)의 실험 즉, 자신의 슬픔에 주의 초점을 맞춘 집단,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높은 감정 이입 점수를 갖는 집단과 낮은 감정 이입 점수를 갖는 집

단간에는 이타행동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타행동이 사회화 과정에 의하여 습득되어 진다 전제하면, 각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녀에게 각기 상이한 행동유형을 기대하거나 진수하는데, 따라서 이타행동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기대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목적중의 하나가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과 특정 정서에 따른 이타행동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느냐는 것이다. 결과는 정서유형과 주의 초점 소재에 따라 남녀간에 이타행동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도움행동을 요청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당시의 정서상태와 주의 초점 소재유형에 따라 부담과 이익을 비교하여 이타행동의 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의사 결정 과정에는 특별히 남녀에 대한 역할 기대의 차이에 의한 인지 과정이 개입되지 않고 이 변인 보다는 그 당시의 정서와 주의 초점의 소재 유형이 이타행동 의사 결정에 더 우위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 문제시 되는 특정 정서를 실험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감정 유발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결과되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한대로 감정 유발이 피험자에게 되느냐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유발된 감정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자연 상황이 아닌 실험실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에 의한 결과를 얼마만큼이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어려움이 있다.

또 아래의 두 가지는 본 연구만의 한계라기 보다는 이타행동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타행동의 개념 자체가 외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타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동기화된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행위자의 내면의 동기에 초점을 맞춘것인데, 막상 이타행동의 측정은 내면의 동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표출된 행동으로 부터 동기를 추론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Battson, 1981).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이롭게한 행위라도 행위자 내면의 동기는 사실 그 행위 당사자 외에 아무도 모른다. 이에 대한 해결점은 이타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행위자의 이타적 동기 외에 다른 변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실험상황의 설계를 세밀히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위의 한계점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 또는 이타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연구마다 결과들이 상이하거나 상반되는데 이는 연구에 사용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 봉연, 1984).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참고 하거나 또는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때,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에 유의하여 결과를 이해하고 친사회적 행동, 이타행동에 대한 통일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지적된 본 연구의 한계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정서-주의초점의 소재 유형-이타행동 연구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Thompson 등 (1980) 이 지적하였듯이 유발하고자 의도된 정서의 적절성의 문

제와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의 중성적 정서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대개의 연구에서 통제 집단은 강렬한 정서와는 관계없는 평이한 내용을 들려줌으로써 통제 집단의 처치를 대신하고 있으나 이 집단의 후속 반응을 점검해 보면 따분함, 지루함, 심하게는 분노까지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통제 집단의 피험자 반응 역시 냉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제 집단의 중성적 정서의 적절한 유발법이 고안되어야만,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변인은 성공감, 실패감, 기쁨, 슬픔, 죄의식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정서로서 세분화된 정서 즉 편안함, 불쾌감, 분노, 수치심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서-이타행동 관계에서 매개 변인

으로서 주의 초점 소재유형중 그 정서가 자신에게 관계된 것인가 또는 타인에게 관계된 것인가의 두 종류만 보았는데 이는 포괄적일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서라도 그 타인이 피험자에게 중요한 타인인가 혹은 낯선 사람인가의 친밀성의 정도에 따라서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서를 보는 것도 흥미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실험실에서의 의도성 및 일반화의 한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제 자연 상황에서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정서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고 인간 서로간의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노력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김선향(1980). 나비 바늘의 기억. 뿌리깊은 나무, 50, 154-162.

서봉연(1984).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 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 155-176.

안신호(1984). 비애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한숙영(1987). 엄마 대신 아빠 대신. 서울: 대교문화사.

(1980). 한국 창작 동화집. 서울: 제일출판사.

Aderman, R. (1972). Elation, depression and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 91-101.

Apsler, R. (1975). Effects of embarrassment on behavior towar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45-153.

Bandura, A. (1965). Influence of models' reinforcement contingencies on the acquisition of imita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589-595.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Barnett, M.A., King, L.M., & Howard, J.A. (1979). Inducing affect about self or other; Effects on generosity in children.

-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64-167.
- Berkowitz, L. (1972). Social norms, feelings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New York: Academic Press.
- Berkowitz, L. (1969). Resistance to improper dependency relationshi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283-294.
- Berkowitz, L., & Conner, W.H. (1966). Success, fail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664-669.
- Carlsmith, J.M., & Gross, A.E. (1969). Some effects of guilt on compl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32-239.
- Cialdini, R.B., & Kenrick, D.T. (1976). Altruism as hedonism; A social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mood stat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07-914.
- Darlington, R.B., & Macker, C.F. (1966). Displacement of guilt produced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442-443.
- Freedman, J.L., Wallington, S.A., & Bless, E. (1967). Compliance without pressure; The effects of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117-14.
- Greenglass, E.R. (1969). Effects of prior help and hindrance on willingness to help another; Reciprocity or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224-231.
- Hoffman, M.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21-137.
- Horowitz, I.A. (1968). Effect of choice and locus of dependence on help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373-376.
- Isen, A.M. (1970). Success, failure, attention and reactions to others: the warm glow of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94-301.
- Isen, A.M., Clark, M., & Schwartz, M.F. (1976). Duration of the effect of good mood on helping; Footprints on the sands of the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85-393.
- Isen, A.M., Clark, M., Shalke, T.E., & Karp, L. (1978). Affect, accessibility of material in memory and behavior; A cognitive loo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2.
- Isen, A.M., Horn, N., & Rosenhan, D.L. (1973). Effects of success and failure on children's genero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239-248.
- Kazdin, A.E., & Bryan, J.H. (1971). Competence and voluntee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87-97.
- Kidd, R.F., & Berkowitz, L. (1976). Dissonance, self-concept and helpfu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623-631.
- Konecni, V.J. (1972). Some effects of guilt on compliance; A field re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30-32.

- Krebs, D.L. (1970). Altruism -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73, 258-302.
- Merton, R.K. (195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Ill: Free Press.
- Midlarsky, E. (1963). Aiding responses: An analysis and review. Merrill-Palmer Quarterly, 14, 229-260.
- Miller, D.T., & Smith, J. (1977). The effect of own deservingness and deservingness of others on children's helping behavior, 48, 617-620.
- Moore, B.S., Underwood, B., & Rosenhan, D. L. (1973). Affect and altruism. Developmental Psychology, 8, 99-104.
- Perry, D.C.,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 Rawlings, E.L. (1966). Witnessing harm to other; A reassessment of the role of guilt in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195-202.
- Levin, P., & Isen, A.M. (1975). Further studies on the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Sociometry, 38, 141-147.
- Rosenhan, D.L., Salovey P., & Hargis, K. (1981). The joys of helping: Focus of attention mediates the impact of positive affect on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899-905.
- Rosenhan, D.L., Underwood, & Moore, B. (1974). Affect mediates self-gratification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46-552.
- Schaps, E. (1972). Cost, dependency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74-78.
- Schopler, J. & Bateson, N. (1965). The power of 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247-254.
- Staub, E. (1971). Helping a person in distress; The influence of implicit and explicit "rules" of conduct on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37-144(b).
- Steele, C.M. (1975). Name-calling and compl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61-369.
- Thompson, W.C., Cowan, C.L., & Rosenhan, D.L. (1980). Focus of attention mediates the impact of negative affect on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91-300.
- Underwood, Froming, & Moore. (1977). Attention, negative affect and altru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54-58.
- Walster, E., & Piliavin, J.A. (1972). Equity and innocent bystander. Journal of Social Issues, 28(3), 165-189.
- Wilson, E.D. (1975). Sociobi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